東洋學 第77輯(2019年 10月)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院

유연 카한 칭호 연구(柔然 可汗 稱號 硏究)

강준영* · 이성규**

▌국문초록▐

4세기 말에 고비 사막의 남과 북에서 흥기한 유연은 중요한 고대 북방민족의 하나로 지난 100여 년간 유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유연 언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고는 기존에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유연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사료 등에 그 의미하는 바가 명확히 남아 있는 유연 카한 칭호 12개에 대해 재분석을 시도한 것이다. “유연의 풍속에서는 군주와 대신은 그 행위와 재능에 따라 칭호를 삼았는데 중국에서 시호를 정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기록처럼 카한 칭호 분석을 위해 카한의 등극 과정과 능력을 살폈고, 한자로 쓰인 칭호의 뜻을 정확하게 풀이하기 위해 『위서』에서 그 한자가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더불어 기존 선행 연구들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사료 분석과 기존 선행 연구를 토대로 카한 칭호를 재분석한 결과, 카한 칭호 중의 ‘tengryin(敕連)’, ‘čori(處羅)’, ‘böke(伏古)’, ‘törü(豆羅)’, ‘dobu(頭兵)’ 등은 몽골어와 돌궐어 양쪽 모두에서 존재하는 어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어휘는 몽골어였으며 접사 같은 경우 대체로 몽골어 형태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흘승(紇升)’, ‘부진(部眞)’, ‘미우가사구(彌偶可社句)’와 같이 해석되지 않는 어휘들도 일부 존재했는데 이는 향후 더 많은 자료의 정리를 통한 연구가 더 진척되면 해석되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유연(柔然), 유연어, 카한[可汗] 칭호, 몽골어, 돌궐어(突厥語)

▍목 차▕

Ⅰ. 머리말
Ⅱ. 연구사와 연구방법
Ⅲ. 유연 카한 칭호 고찰
Ⅳ. 카한 칭호의 어휘 분석
Ⅴ. 맺음말

* 중국 내몽고대학교 박사과정 / ab522412@nate.com
** 교신저자, 단국대학교 몽골학과 교수 / sglee@dankook.ac.kr

Ⅰ. 머리말

4세기 말, 고비 사막의 남과 북에서 흥기한 유연(柔然)은 6세기까지 몽골 고원을 지배했는데 지정학적 위치상 몽골 계통으로 알려진 탁발선비와 튀르크 계통인 고차와 매우 밀접하였다. 이는 유연의 원류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여 『위서(魏書)』에서는 유연을 ‘동호의 후예’[1]라고 했고, 『송서(宋書)』, 『양서(梁書)』에서는 ‘흉노의 별종’[2]이라 하였으며 『남제서(南齊書)』에서는 ‘새외의 잡호’[3]라고 하였다.

원류에 대한 기록의 차이는 민족 계통 문제로 귀결되어 유연의 계통을 확인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특히, 문헌학과 고고학 등을 토대로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고, 이 성과를 바탕으로 현재 학자들은 대체로 유연을 몽골 계통으로 보고 있다. 이와 궤를 같이하여 유연의 언어에 대해서도 대체적으로 몽골어 계통의 언어로 인식하고 있다.[4] 그러나 유연어의 일부 어휘가 알타이어계에 속하지 않으며 몽골어와도 관련이 없다는 보빈(Vovin, A.)의 지적과 같이[5] 유연 언어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제기됨에 따라 유연 언어를 확인하기 위한 언어학적 분석이 다시금 필요하다.

유연의 언어는 ‘유송 시기에 예예의 국상 희리인(希利垔)이 천문과 역수(曆數), 수술(數術)[의 이치를] 능히 깨달았고, 호어(胡語)와 한어(漢語)에 능통하였다.’[6]라는 기록을 통해 호어 즉, 북위 탁발선비의 말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남긴 문자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유연의 언어가 정확히 어떠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럼에도 돌궐이 소그드 문자를 차용해 사용했고,[7] 회흘(回紇)도 초기에 브라흐미(Brahmi) 문자를 사용했음으로 미루어 보아[8] 이들의 전에 몽골초원을 지배했던 유연도 역시 한자뿐만 아니라[9] 소그드, 브라흐미 등 여타 문자를 사용해 스스로 남긴 언어 자료가 존재할 수도 있다 생각된다.

---

1) 『魏書』 卷103, 列傳91, 蠕蠕傳, “蠕蠕, 東胡之苗裔也.”

2) 『宋書』 卷95, 列傳55, 索虜傳, “芮芮一號大檀, 又號檀檀, 亦匈奴別種.”; 『梁書』 卷54, 列傳48, 西北諸戎傳, “芮芮國, 蓋匈奴別種.”

3) 『南齊書』 卷59, 列傳40, 芮芮虜傳, “芮芮虜, 塞外雜胡也.”

4) 白鳥庫吉, 「東胡民族考」, 『白鳥庫吉全集, 第四卷, 塞外民族史研究 上』, 東京: 岩波書店, 1970; 藤田豐八, 「蠕蠕の國號及び可汗號につきて」, 『東西交涉史の研究, 卷下, 西域篇及附篇』, 東京: 荻原星文館, 1943; Pelliot, P., “L’origine de T‘ou-kiue, nom chinois des Turcs”. *T’oung Pao* 16-5, 1915; 馮承鈞, 「高車之西徒與車師鄯善國人之分散」, 『馮承鈞西北史地論集』,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13.

5) Alexander Vovin, “Some Thoughts on the Origins of the Old Turkic 12-Year Animal Cycle”, *Central Asiatic Journal* 48-1, 2004; Alexander Vovin, “Once Again on the Ruan-ruan Language”, *Ötüken’den İstanbul’a Türkçenin 1290 Yılı(720–2010) Sempozyumu From Ötüken to Istanbul*, 2010.

6) 『南齊書』 卷59, 列傳40, 芮芮虜傳, “宋世其國相希利垔解星筭數術, 通胡・漢語.”

7) 1956년 몽골의 고고학자 도르지수렌(Dorjsuren, Ts.)이 발견한 돌궐 마한 테긴(Mahan tegin)의 기공비인 보가트(Bugat) 비문이 소그드 문자로 쓰여 있음을 통해 확인된다.

8) 1975년 몽골의 볼간道(Bulgan Aimag)에서 발견된 일명 ‘후이스 톨고이(khüis tolgoi) 비석’이 최근 연구로 당나라 초기 회흘(回紇) 보살카한(菩薩可汗)의 업적을 브라흐미 문자를 써 몽골어 문장 구조로 기술했음이 밝혀졌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ue, D., “Signs and Sounds”, *Academia.edu*, Retrieved 4 November, 2018; Vovin, A., “An Interpretation of the Khüis Tolgoi Inscription”, *Academia.edu*, Retrieved 4 November, 2018; Étienne de la Vaissière, “The Historical context to the Khüis Tolgoi inscription”, *Academia.edu*, Retrieved 4 November, 2018 등을 참조.

9) 『魏書』 卷103, 列傳91, 蠕蠕傳, “永平元年, 伏圖又遣勿六跋奉函書一封……阿那再拜受詔, 起而言曰,……但所欲言者口不能盡言, 別有辭啓, 謹以仰呈, 願垂昭覽.”; 『南齊書』 卷59, 列傳40, 芮芮虜傳, “二年・三年, 芮芮主頻遣使貢獻貂皮雜物. 與上書欲

그나마『위서』를 비롯한 사료들에 인명이나 관직명, 카한 칭호 등이 남아있어 이를 분석하면 유연 언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카한 칭호는 그 뜻하는 바도 함께 쓰여 있어 유연 언어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근간이 되는 자료라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전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언어학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관직명이 지명이나 일반 어휘보다 비교적 해당 부족이나 민족의 언어적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다면[10] 카한 칭호는 더욱이 해당 부족이나 민족의 언어적 특성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연 카한 칭호의 어휘 분석을 통해 유연 언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사와 연구방법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대다수 학자들은 유연어를 몽골어족에 속한다고 보고 있으나 일부 학자들은 세부적으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기도 한다. 우선 내몽골 학자 이린친(Irinchin, Y.)은 유연어가 몽골어와 같은 어계의 언어로 동호어에 연원을 두었지만 같은 언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며 유연어는 탁발 선비 언어의 근간에서 떨어져 나온 올랑찹[烏蘭察布] 고원에서 4~6세기에 형성된 고대 언어로 몽골어와 가깝지만 몽골어는 아니라고 하였다.[11] 주위주(周偉洲)는 유연어가 기본적으로 선비어과 같지만 5세기 초에 유연 정권이 세워진 뒤 씨족과 부락 구성이 복잡해지며 튀르크 계통의 칙륵(敕勒) 언어 및 기타 언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12] 주건기(周建奇)는 한발 더 나아가 "마치 북위의 말로[猶魏言]"라는 기록을 토대로 탁발선비와 유연의 언어가 다르며 유연의 선조인 목골려 또는 욱구려(郁久閭)가 몽골어로 풀이되므로 탁발선비의 언어는 돌궐어이고, 유연어가 몽골어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13]

최근에 중국의 이수휘(李樹輝)가 '유연의 관직명 및 투르판 하라호자[哈喇和卓, Karakhoja]의 무덤에서 출토된 돌궐어 "대인목패(代人木牌)"가 유연이 돌궐어 부락이었음을 알려준다'고 언급하며 유연어를 돌궐어라고 보았다.[14] 그러나 일찍이 '돌궐의 임금을 카한[可汗]이라 칭하고 왕후를 카톤[可賀敦]이라 칭하는 것은 모두 유연의 옛 칭호를 따른 것이며 이리발(俟利發)도 역시 그렇다.'라는 왕국유(王國維)의 언급[15]과 돌궐의 관직명과 정치 체제는 유연의 것을 계승했다는 라신(羅新)의 연구에서 살필 수 있듯이[16] 유연어를 돌궐어로 본 이수휘의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

최초로 유연 카한 칭호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연구를 진행했던 일본의 시라토리 쿠라키치[白鳥庫吉]는 사료

伐魏虜,……國相邢基祇羅奉表曰."이라 하여 '함서(函書)', '사계(辭啓)' '상서(上書)', '표(表)' 등의 표현이 보이는데 이것들은 대개 한문으로 쓰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林幹,『東胡史』,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7, 142쪽.

10) 이성규 외,『알타이어족 언어의 관직명 연구』, 용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3, 20~21쪽.
11) 亦隣眞 · 希都日古希,「柔然拾零」,『元史及民族與邊疆研究集刊』 23, 2011.
12) 周偉洲,『勅勒與柔然』,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128쪽.
13) 周建奇,「釋"木骨閭"」,『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7-1.
14) 李樹輝,「尉犁地名和柔然源流考」,『新疆大學學報』(哲學人文社會科學版), 2007-2.
15) 王國維,「高昌寧朔將軍麴斌造寺碑跋」,『觀堂集林 卷第二十, 史林 第十二』, 北京: 中華書局, 1959, 987쪽.
16) 羅新,『中古北族名號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9, 108~165쪽.

에 남아있는 12개의 카한 칭호 가운데 9개에 대해 분석을 하였고, 기본적으로 유연어를 몽골어라고 보았다.[17] 시라토리의 카한 칭호 분석은 수긍할만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견강부회한 부분도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18] 시라토리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한 후지타 토요하치[藤田豊八]는 유연 카한 칭호 12개 모두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 시라토리와 같이 유연어를 몽골어로 보았다.[19] 후지타의 연구 역시 견강부회한 부분이 적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으나 시라토리의 문장과 더불어 유연 카한 칭호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 이후 일본의 역사학자 우치다 긴푸[内田吟風]가 시라토리와 후지타가 재구한 형태에 대해 대차 비교를 했는데[20] 대체로 후지타의 견해가 옳다고 보고 그가 재구한 형태를 따랐다.[21]

1992년에는 몽골국의 역사학자 수흐바타르(Sukhbaatar, G.)가 『몽골 니룬[柔然]국』에서 유연 카한들의 칭호에 대해 분석한 바가 있다.[22] 수흐바타르는 기존 연구 업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중・러사전』을 참조하여 유연 카한 칭호에 대한 재분석을 하여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지만 일부 분석에 있어 곡해한 부분이 다소 있다. 이 외에도 프랑스의 펠리오(Paul Pelliot),[23] 중국의 방장유(方壯猷),[24] 유금쇄(留金鎖),[25] 주위주(周偉洲),[26] 대광우(戴光宇),[27] 저태송(儲泰松)・장애운(張愛雲),[28] 러시아의 타스킨(Taskin, V. S.)[29] 등이 카한 칭호에 대해 일부 분석을 하거나 기존 연구 성과에 대해 언급한 바가 있다. 국내에서는 유연 언어에 대한 연구 자체가 전무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그 뜻하는 바가 남아있어 명확한 해석이 가능한 12개의 유연 카한 칭호를 분석한다. 우선 곽석량(郭錫良)[30]과 이진화(李珍華)・주장읍(周長揖)[31]의 저작에 의거해 중국 상고음과 중고음을 재구한다. 이어 유연 카한 칭호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들을 다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유연의 풍속에서는 군주와 대신은 그 행위와 재능에 따라 칭호를 삼았는데 중국에서 시호를 정하는 것과 유사하다.'[32]는 기록처럼 유연의 역대 카한들이 어떠한 경위를 통해 등극했고, 어떠한 재능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피어 재분석한다.

---

17) 본 논문은 白鳥庫吉, 「東胡民族考」, 『白鳥庫吉全集, 第四卷, 塞外民族史研究 上』, 東京: 岩波書店, 1970에 재수록 되었다.
18) 林幹, 앞의 책, 2007, 141쪽의 각주 4번.
19) 본 논문은 藤田豊八, 「蠕蠕の國號及び可汗號につきて」, 『東西交涉史の研究, 卷下, 西域篇及附篇』, 東京: 荻原星文館, 1943에 재수록 되었다. 현재 중국과 한국 등에서 후지타의 글을 인용함에 있어 1900년에 발표되었다고 표기한 것들이 상당수 있다. 이는 원문을 보지 않고, 남이 잘못 인용한 것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0) 内田吟風, 「後魏柔然表(上) : 中古蒙古史の編年史的整理の意圖をかねて」, 『東洋史研究』 8: 5-6, 1944; 内田吟風, 「後魏柔然表(下) : 中古蒙古史の編年史的整理の意圖をかねて」, 『東洋史研究』 9: 3, 1945.
21) 内田吟風・田村実造 他訳注, 『騎馬民族史 正史北狄伝 1』, 東京: 平凡社東洋文庫, 1971.
22) Sukhbaatar, G., *Mongol Nirun Uls*, Ulaanbaatar, 1992.
23) Paul Pelliot, "Note sur les Tou-yu-houen et les Sou-p'i", *T'oung pao* 20-5, 1921; Paul Pelliot, "Livres Reçus", *T'oung pao* 29-1, 1932.
24) 方壯猷, 「鮮卑語言考」, 『燕京學報』 8, 1930.
25) 留金鎖, 「古代蒙古及蒙古汗國的建立」, 『内蒙古社会科學』, 1980-1.
26) 周偉洲, 『勅勒與柔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27) 戴光宇, 「試論鮮卑語、契丹語和满語的關係」, 『滿語研究』, 2014-2.
28) 儲泰松・張愛雲, 「"處可寒"語源考」, 『安徽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46: 3, 2018.
29) Taskin, V. S.,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древних кочевых народов группы дунху,* Москва, 1984.
30) 郭錫良, 『漢字古音手冊』(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0.
31) 李珍華・周長揖,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1993.
32) 『魏書』 卷103, 列傳91, 蠕蠕傳, "蠕蠕之俗, 君及大臣因其行能即爲稱號, 若中國立諡."

Ⅲ. 유연 카한 칭호 고찰

유연 카한 칭호와 그 것이 뜻하는 바에 대해서는 최초로 북제(北齊)의 위수(魏收)가 554년에 완성한 『위서』 권103 「연연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사륜은 멀리 사막 북쪽으로 도망하여……스스로 ‘구두벌가한(丘豆伐可汗)’이라고 일컬었다. ‘구두벌(丘豆伐)’은 [북]위의 말로 ‘가어개장(駕馭開張)’이라는 뜻이고, 가한은 [북]위의 말로 황제와 같은 의미이다.……부락[인]은 사륜의 동생 곡률을 세워 ‘애고개(藹苦蓋)’가한이라고 일컬었다. 북위의 말로 ‘자질이 훌륭하다[資質美好]’는 뜻이다.……대단은……나라 사람들은 그를 추대하여 ‘모한흘승개(牟汗紇升蓋)’가한이라 일컬었으니 [북]위의 말로 ‘제압해 이기다[制勝]’는 뜻이다.……대단은 부락이 쇠약해지자, 이로 말미암아 병이 나서 죽었다. 아들 오제가 즉위하여 ‘칙련(敕連)’가한이라고 일컬었다. [북]위의 말로 ‘신성(神聖)’하다는 뜻이다.……오제가 죽자 아들 토하진이 즉위하여 ‘처(處)’가한이라고 일컬었으니 [북]위의 말로 ‘유(唯)’라는 뜻이다……화평 5년(464)에 토하진이 죽자 아들 여성이 즉위하여 ‘수라부진(受羅部眞)’가한이라고 일컬었으니 [북]위의 말로 ‘혜(惠)’라는 뜻이다.……[태화] 9년(485)에 여성이 죽고 아들 두륜이 즉위하여 ‘복고돈(伏古敦)’가한이라고 일컬었으니 [북]위의 말로 ‘항(恒)’이라는 뜻이다.……나개가 ‘후기복대고자(候其伏代庫者)’가한이라고 일컬었으니 [북]위의 말로 ‘열락(悅樂)’이라는 뜻이다.……나개가 죽자 아들 복도가 즉위하여 ‘타한(他汗)’가한이라고 일컬었으니 [북]위의 말로 ‘서(緖)’라는 뜻이다.……아들 추노가 즉위하여 ‘두라복발두벌(豆羅伏跋豆伐)’가한이라고 일컬었으니 [북]위의 말로 ‘창제(彰制)’라는 뜻이다.……[연연에서는] 바라문을 추대하여 군주로 삼고 ‘미우가사구(彌偶可社句)’가한이라고 일컬었으니 [북]위의 말로 ‘안정(安靜)’이라는 뜻이다.……아나괴의 부락이 [북위와] 화해한 뒤 군대가 점차 강성해지자 이에 ‘칙련두병두벌(敕連頭兵豆伐)’가한이라고 일컬었으니 [북]위의 말로 ‘파람(把攬)’이라는 뜻이다.”33)

이상과 같이 『위서』에는 최초 카한이라 자칭한 사륜으로부터 아나괴에 이르기까지 유연 카한 12명의 칭호와 그 뜻하는 바를 기록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북사(北史)』를 비롯한 『통전(通典)』, 『책부원구(冊府元龜)』, 『자치통감(資治通鑑)』 등의 사료와 묘지명(墓誌銘) 등에도 카한 칭호가 남아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

33) 『魏書』 卷103, 列傳91, 蠕蠕傳, “社崘遠遁漠北,……於是自號‘丘豆伐可汗’. ‘丘豆伐’猶魏言‘駕馭開張’也, 可汗猶魏言皇帝也.……部落立社崘弟斛律, 號‘藹苦蓋’可汗, 魏言‘姿質美好’也.……大檀者,……國人推戴之, 號‘牟汗紇升蓋’可汗, 魏言‘制勝’也.……大檀部落衰弱, 因發疾而死, 子吳提立, 號‘敕連’可汗, 魏言‘神聖’也.……吳提死, 子吐賀眞立, 號‘處’可汗, 魏言‘唯’也.……和平五年, 吐賀眞死, 子予成立, 號‘受羅部眞’可汗, 魏言‘惠’也.……[太和]九年, 予成死, 子豆崘立, 號‘伏古敦’可汗, 魏言‘恒’也.……那蓋號‘候其伏代庫者’可汗, 魏言‘悅樂’也.……那蓋死, 子伏圖立, 號‘他汗’可汗, 魏言‘緖’也.……子醜奴立, 號‘豆羅伏跋豆伐’可汗, 魏言‘彰制’也.……推婆羅門爲主, 號‘彌偶可社句’可汗, 魏言‘安靜’也.……阿那部落旣和, 士馬稍盛, 乃號‘敕連頭兵豆伐’可汗, 魏言‘把攬’也.”

〈표 1〉 사료에 기록된 유연 카한 칭호 및 설명

연번	카한칭호	한문설명	출전
1	丘豆伐	駕馭開張	『魏書』卷103, 列傳91 『通典』卷196, 邊防12
	豆代[34]		『北史』卷98, 列傳86 『資治通鑑』卷112, 宋紀6
	丘豆代		『資治通鑑』卷112, 宋紀6의 胡三省注
2	藹苦蓋	資質美好	『魏書』卷103, 列傳91
3	牟汗紇升蓋	制勝	『魏書』卷103, 列傳91
	莫洛紇蓋		郁久閭伏仁專誌[35]
4	敕連[36]	神聖	『魏書』卷103, 列傳91
5	處	唯	『魏書』卷103, 列傳91
	處羅		『資治通鑑』卷112, 宋紀6의 胡三省注
6	受羅部眞	惠	『魏書』卷103, 列傳91
7	伏古敦	恒	『魏書』卷103, 列傳91
	伏名敦		『冊府元龜』卷996 『資治通鑑』卷136, 齊紀2의 胡三省注
8	候其伏代庫者	悅樂	『魏書』卷103, 列傳91
9	他汗	緒	『魏書』卷103, 列傳91
10	豆羅伏跋豆伐	彰制	『魏書』卷103, 列傳91
	豆羅伏拔豆伐		『北史』卷98, 列傳86
11	彌偶可社句	安靜	『魏書』卷103, 列傳91
12	敕連頭兵豆伐	把攬	『魏書』卷103, 列傳91
	敕連頭兵伐		『北史』卷98, 列傳86

34) 白鳥庫吉와 藤田豐八는 『북사』에서 '구두벌(丘豆伐)'이 '두벌(豆伐)'이라 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이 사용한 『북사』 판본이 현재 가장 많이 통용되는 중화서국 표점교감본과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 中國科學院歷史研究所史料編纂組編, 『柔然資料輯錄』, 中華書局, 1962, 59~60쪽.

36) 2005년 중국의 서안시(西安市) 장안현(長安縣)에서 출토된 수나라 시기의 욱구려가파두(郁久閭可婆頭) 묘지명에 유연 카한 칭호로 모용(莫容)이 등장한다(陝西省考古研究院, 「長安高陽原隋郁久閭可婆頭墓發掘簡報」, 『文博』, 2018-4.). 이는 묘지명 주인인 가파두의 증조부인 오계(烏稽)의 카한 칭호로 趙海燕은 자음의 유사성을 들어 오계가 칙련(敕連) 카한인 오제(吳提)라고 보았다(趙海燕, 「隋代柔然貴族 ≪郁久閭可婆頭墓志≫ 探析」, 『四川文物』 203, 2019-1, 71쪽.). 이와 달리 주위주는 오계가 누구인지 고찰할 수 없다고 하였다(周偉洲, 『新出土中古有關胡族文物研究』, 北京: 社會科學文憲出版社, 2016, 92쪽.). 오계와 오제란 이름이 유사하나 카한 칭호가 확연히 달라 같은 인물이라 비정할 수 없고, 그 뜻하는 바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고에서는 모용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다.

1. 구두벌(丘豆伐), 두대(豆代), 구두대(丘豆代) : 駕馭開張[37]

郭錫良	上古音 : kʻĭwə do bĭwāt, [kʻĭwə] do dək
	中古音 : kʻĭəu dəu bĭwɐt, [kʻĭəu] dəu dɒi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khĭwə dɔ bĭwat, [khĭwə] dɔ də
	中古音 : khĭəu dəu bĭwɐt, [khĭəu] dəu dɒi
白鳥庫吉	kütelebada
藤田豐八	küteleburi
Sukhbaatar, G.	quta(γ)tai 또는 quto(γ)tai

시라토리는 『위서』의 구두벌(丘豆伐)이 올바른 표기이며 『북사(北史)』의 두벌(豆伐)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구두(丘豆)'를 몽골어에서 관리, 처치, 지휘를 뜻하는 Kütele, 고삐[韁繩], 제어(制馭)를 뜻하는 kütele-bori와 연결하고, 'Kütele'의 약역(略譯)이라고 보았다. 이어서 '벌(伐)'은 몽골어에서 광대(廣大), 개장(開張)이란 의미를 지닌 badara, 만주어의 bada, badarambi로 파악하고, 'bada'의 대음으로 보았다.[38]

후지타는 가어개장(駕馭開張)을 가어와 개장으로 나누어 분석한 시라토리와 달리 『사기』 「항우본기」의 '이때 기장이 된 적천후가 항왕을 추격하였는데 항왕이 눈을 부릅뜨고 그를 꾸짖으니 적천후 휘하의 군졸과 말이 모두 놀라서 몇 리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39]란 기록을 『사기정의』에서 '사람과 말이 모두 놀라 열어젖히고는(開張) 원래 있던 곳을 바꾸어 몇 리까지 가는 것이었다.'[40]라고 주석한 내용에 근거해 개장(開張)에 가어(駕馭)란 뜻이 포함되었다고 보았다. 즉, 가어개장을 하나의 어휘로 파악하여 구두벌에서 구두를 시라토리와 같이 Kütele로 보고 벌은 접미사 buri로 보아 구두벌을 'Küteleburi' 지휘, 처치 등을 뜻하는 명사형으로 분석했다.[41]

수흐바타르는 시라토리, 후지타 등이 사륜(社崘)의 카한 칭호를 '구두벌(丘豆伐)'로 보았지만 이는 본래 유연어의 발음이나 뜻과 부합하지 않다고 하였다.[42] 그러면서 '구두대(丘豆代)'가 올바른 표기로 이는 몽골 비치크에서의 'quta(γ)tai'에 상응하는데 이는 '가어개장(駕馭開張)'이 내포한 '통솔력, 지휘, 길잡이, 조종, 발달, 발전' 등의 뜻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본래 'qutaγ'은 자음 'γ'가 없었는데 13~14세기에 몽골어를 중국어로 표기하며 'γ'가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또한 일부 학자들의 주장과 달리 'quta(γ)'은 돌궐어에

---

37) 일찍이 러시아의 비추린(Bichurin, N. Ya.)은 『북사』의 기록을 따른 듯 두대(豆代)라고 기술하고, 가어개장(駕馭開張)을 '활로 쏘는 궁수'라는 뜻의 'на скаку стреляющий из лука'로 번역한 바가 있지만 무엇에 근거했는지 알 수 없다. Bichurin(Iakinf), N. Ya.,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обитавших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 Т. I.*, М.; Л, Р, 1950, p.209.

38)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230~231쪽.

39) 『史記』 卷7, 項羽本紀, "是時, 赤泉侯爲騎將, 追項王. 項王瞋目而叱之, 赤泉侯人馬俱驚, 辟易數里."

40) 『史記正義』, "言人馬俱驚, 開張易舊處, 乃至數裏."

41) 藤田豐八, 앞의 책, 1943, 188~190쪽.

42) Sukhbaatar, G., 앞의 책, 1992, 214쪽.

서 몽골어로 차용한 것이 아니라 몽골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여 온 단어라고 설명하였다.[43]

최초로 카한을 자칭한 사륜의 칭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료에 기록된 ‘구두벌(丘豆伐)’, ‘두대(豆代)’, ‘구두대(丘豆代)’ 중 어떤 표기가 올바른 것이냐를 찾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유연의 8번째 카한 칭호인 ‘후기복대고자(候其伏代庫者)’, 10번째 카한 칭호인 ‘두라복발두벌(豆羅伏跋豆伐)’, 12번째 카한 칭호인 ‘칙련두병두벌(敕連頭兵豆伐)’이다. 8・10・12번째 카한 칭호에서 볼 수 있듯이 『위서』에서는 ‘대(代)’와 ‘벌(伐)’자를 확실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10・12번째 카한 칭호에 이미 두벌이 보이고, 『위서』 「실위전」에 장언두벌(張焉豆伐)이란 인명이 보인다는 점도 대(代)가 아닌 벌(伐)임을 반증한다.[44] 따라서 ‘두대(豆代)’와 ‘구두대(丘豆代)’는 성립될 수 없다.

현재의 『위서』 「연연전」은 늦어도 북송 초기에 산실되며 후인이 『북사』 「연연전」에 기초해 다시 집록해 완성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기록은 남아 있었고, 『위서』가 산실되기 전의 내용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 있는 『통전(通典)』에도 ‘구두벌’로 기술되어 있음을 통해 볼 때 ‘구두벌’이 더 정확하다고 판단된다. 『자치통감』은 『북사』의 것을 참조해 ‘두대’라 기술하고 있지만 호삼성(胡三省)이 주해에서 ‘구두대(丘豆代)’라 기술한 것으로 보아도 확실히 ‘구(丘)’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기에 사륜(社崘)의 카한 칭호는 ‘구두벌(丘豆伐)’이 맞다.

사륜은 ‘고차를 침략하고, 그 땅으로 깊이 들어가 마침내 여러 부족을 병합하니 흉악한 세력이 날로 떨쳐 일어났다.……이후 모두 사륜에게 병합되니 [유연은] 강성하다고 불리어졌다.……소국들은 모두 유연의 침입과 약탈에 고심하였고, [유연은 이들을] 기미하여 예속시켰다.’[45]라는 기록과 같이 주변의 부족들을 병합해 강성해졌고, 이를 기반으로 카한을 자처하였다. 따라서 구두벌이 뜻하는 ‘사람을 부려 크게 열어 확장시키다[駕馭開張]’라는 것은 사륜이 유연을 이끌어 강성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반영한 어휘일 것이다. 그리고 이는 후지타가 주장한 바와 같이 몽골어 ‘küteleburi’ 〉 현대 몽골어 ‘khötölbüri’와 그 소릿값이나 뜻에 있어 일맥상통한다.

구두벌(丘豆伐)을 ‘küteleburi; 영도자, 지도자, 이끄는 분’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되며 이는 ‘kütele; 지휘하다, 이끌다 등의 뜻을 지닌 kütelekü의 어간 + büri; 명사 파생 접사 –buri/büri~-bur/-bür’로 나눌 수 있으며 현대 몽골어의 ‘khötölbüri’와 연결된다.

2. 애고개(藹苦蓋) : 資質美好[46]

시라토리는 ‘애고(藹苦)’를 몽골어에서 풍습, 성질, 자질 등을 뜻하는 ‘djang’로 보고, 어두의 자음 ‘dj’가 옛

43) Sukhbaatar, G., 위의 책, 1992, 202쪽.

44) 『魏書』 卷100, 列傳88, 失韋國傳, “武定二年四月, 始遣使張焉豆伐等獻其方物.” 『북사』에서는 장오두벌(張烏豆伐)이라 되어 있다.

45) 『魏書』 卷103, 列傳91, 蠕蠕傳, “侵高車, 深入其地, 遂幷諸部, 凶勢益振.……後盡爲社崘所幷. 號爲强盛.……小國皆苦其寇抄, 羈縻附之.”

46) 비추린은 資質美好를 ‘뛰어난 특성’이라는 뜻의 ‘прекрасными свойствами’으로 번역하였다. Bichurin(Iakinf), N. Ya., *op. cit.*, 1950, p.210.

郭錫良	上古音 : āt k'a ɣăp[kăp]
	中古音 : ai k'u kai[kap]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at kha kat
	中古音 : ɑi khu kɑi
白鳥庫吉	yak, yag→djang(yang) + gowa 또는 sajn 〉 gaj
藤田豊八	ukhangan
Sukhbaatar, G.	aγuu gowa
戴光宇	ariγun

날엔 'y'로 소리했음을 근거로 몽골어 djang을 옛 발음으로 'yang'으로도 쓸 수 있다 하였다. 이어 yang의 옛 발음인 'yag', 'yak'이 '애고(藹苦)'의 대음이라고 하였다. '개(蓋)'는 몽골어에서 아름답다[美好]는 뜻을 가진 'gowa'로 연결하였으며 이것이 아니라면 아름답다[美好]는 뜻을 가진 다른 몽골어 'sajn'으로 변화된 음인 'gaj'의 전와(轉訛)일 것이라고 추측했다.[47)]

후지타는 시라토리와 달리 '자질미호(資質美好)'를 하나의 낱말로 파악하고 이를 지혜, 총명 등을 뜻하는 몽골어 'ukhangan'으로 분석하였다. 이어 지혜, 총명이란 뜻을 위나라의 사가가 자질미호(資質美好)로 기술했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증거는 언급하지 않았다.

수흐바타르는 '애고(藹苦)'를 몽골어의 'aγuu'로 연결하며 『몽골비사』에서 'aγuu'가 '기(氣)', '기력(氣力)'이란 뜻으로 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였다. '개(蓋)'에 대해서는 시라토리의 견해와 같이 'gowa'로 보았다.[48)] 이 외에 중국의 戴光宇가 애고개를 순결을 의미하는 몽골어 'ariγun'으로 연결한 바가 있다.[49)]

유연의 초대 카한인 사륜이 죽고, 카한으로 올라야 할 아들인 탁발의 연령이 어려 무리를 거느릴 수 없었기에 부락인들은 사륜의 동생인 곡률을 카한으로 세우고, 애고개카한이라고 하였다.[50)] 즉, 자질이 훌륭하다[資質美好]라는 뜻을 지닌 애고개에는 연륜이 풍부한 곡률이 무리를 잘 이끌어 줄 것이라는 믿음이 반영된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애고(藹苦)'는 그 소릿값이나 뜻에 있어 수흐바타르의 견해와 같이 '훌륭한, 위대한, 성스러운' 등의 뜻을 지닌 몽골어 'aγuu'와 제일 부합한다. 하지만 '개(蓋)'는 그 소릿값으로 볼 때 'gowa'로 보기 힘들며 몽골어에서 명사를 형성하는 접사로 '존경 혹은 금지의 사고나 색깔, 경향'을 나타내는 '-qai/-gei'로 생각된다.[51)] 즉, 애고개는 '훌륭한 분'이라는 뜻을 지닌' 몽골어 'aγuuqai'로 보아야 할 것이며 'qaγan(可汗)'와 합쳐져 '성군(聖君)'이란 의미로 분석된다.

애고개(藹苦蓋)를 'aγuuqai; 훌륭한 분, 위대한 분 + 카한 〉 성군(聖君)'으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47)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231쪽.
48) Sukhbaatar, G., 앞의 책, 1992, 203쪽.
49) 戴光宇, 앞의 논문, 2014-2, 53쪽.
50) 『魏書』 卷103, 列傳91, 蠕蠕傳, "社崘遁走, 道死. 其子度拔年少, 未能御衆, 部落立社崘弟斛律, 號藹苦蓋可汗."
51) 諾日金(Norjin), 『monɣol kelen-ü üge bütügekü daɣaburi-yin quriyangɣui(蒙古語構詞後綴滙總)』, 呼和浩特: 內蒙古教育出版社, 2001, 38쪽.

'aɣuu; 훌륭한, 위대한, 성스러운이라는 뜻을 지닌 몽골어 + -qai/-gei; 명사 형성 접사'로 분석이 가능하다.

3. 모한흘승개(牟汗紇升蓋) 또는 모낙흘개(莫洛紇蓋) : 制勝[52)]

郭錫良	上古音 : mĭəu[məu] ɣan ɣə̆t ɕĭəŋ ɣăp[kăp] măk lăk ɣə̆t ɣăp[kăp]
	中古音 : mĭəu[məu] ɣan ɣət ɕĭəŋ kai[kap] mak lak ɣət kai[kap]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mĭu ɣan □ ɕĭəŋ kat muak lak □ kat
	中古音: mĭəu ɣɑn □ ɕĭəŋ kɑi mɑk lɑk □ kɑi
藤田豐八	mükügesek, mokhoghasak
Sukhbaatar, G.	moqoɣon gesgekü
留金鎖	mokhoshi ügei 또는 mokhoshgüi

후지타는 모한흘(牟汗紇)'을 '완승하다, 절멸(絶滅)시키다' 등의 의미를 가진 몽골어 'mükügekü', 'mokhoghakhou'와 연결시키고, 그 명사형인 'müküge', 'mokhogha'로 보았다. 그리고 '승개(升蓋)'는 '……좋아하는'이라는 뜻을 덧붙이는 접미사 'sek', 'sak'의 대음으로 보았다.[53)] 즉, 모한흘승개를 '완승을 좋아하는, 절멸을 좋아하는'이라는 뜻을 지닌 'mükügesek', 'mokhoghasak'으로 설명한 것이다.

유금쇄는 모한흘승개를 '불효불굴(不撓不屈)'이라는 뜻을 지닌 몽골어 "mokhoshi üge"의 옛 소리라고 설명하였다.[54)] 수흐바타르는 '제승(制勝)'이라는 뜻이 있으며 칼그렌(Karlgren)이 분석한 소릿값과 비슷한 'moqoɣon gesgekü'일지도 모른다고 보았다.[55)]

이상과 같은 기존 견해들은 취약점이 있는데 바로 수나라 시기 욱구려복인(郁久閭伏仁) 묘지명에 모한흘승개가 '막낙흘개(莫洛紇蓋)'로 되어 있다는 점[56)]을 고려치 못했다는 것이다. 즉, 모한흘승개와 막낙흘개 2개를 분석하여 그 의미가 상통해야 만이 가한의 칭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한흘승개와 막낙흘개의 어휘 구성 형태로 볼 때 '모한'과 '막낙'이 상응하며 '흘승'과 '흘'이 상응하고, 여기에 애고개의 개와 마찬가지로 명사 형성 접사인 '-qai/-gei'가 붙은 단어로 생각된다.

더불어 칭호의 뜻인 제승(制勝)이 의미하는 바를 파악하기 위해 대단(大檀)이 카한에 올라 칭호를 받은 상

52) 비추린은 제승(制勝)을 '백전백승의', '불패의', '승리를 얻은' 등의 뜻을 가진 'победоносный'로 번역하였다. Bichurin (Iakinf), N. Ya., *op. cit.*, 1950, p.212.
53) 藤田豐八, 앞의 책, 1943, 191~192쪽.
54) 留金鎖, 앞의 논문, 1980-1, 54쪽.
55) Sukhbaatar, G., 앞의 책, 1992, 203쪽.
56) 본 묘지명은 1956년에 발간된『漢魏南北朝墓誌輯釋』에 처음 실렸으며 가장 최근에는 王萌 · 杜汉超가 이를 다시 연구한 바가 있다. 王萌 · 杜汉超,「隋代 ≪郁久閭伏仁墓誌≫ 考釋」,『草原文物』, 2017-1.

황을 살펴보면 당시 카한이었던 보록진(步鹿真)이 질락후(叱洛侯)의 어린 처와 간음을 했는데 그녀가 질락후가 대단을 카한으로 추대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 이에 보록진이 군사를 보내 질락후를 포위하자 질락후는 자살을 한다. 보록진은 이어 대단을 습격하지만 대단의 반격으로 죽임을 당하였고 대단은 자립한다. 대단은 이전에 다른 부락을 통솔하여 서쪽 경계지역에 주둔하면서 민중의 마음을 얻은 바 있었기에 나라 사람들이 그를 추대하고 모한흘승개라고 하였다.57) 이를 통해 '제압해 이기다[制勝]'라고 한 데에는 전쟁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민심을 얻어 승리했다는 중의적인 표현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모한흘승개(牟汗紇升蓋)를 다시 분석해 보면 먼저 모한(牟汗)은 후지타나 수흐바타르의 견해와 같이 '죽이다, 기를 꺾다, 무너뜨리다, 무디게 하다' 등의 뜻을 지닌 몽골어 'moqoγoqu, mökhögekhü'의 어간 'moqoγo, mökhöge'에 명사파생접사 '-n'이 붙은 형태인 'moqoγon, mökhögen'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막낙(莫洛)이 'moqoγoqu'의 사동태인 'moqoγolaγaqu'의 어간 'moqoγolaγa'와 유사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즉, 모한과 막낙은 제압이란 뜻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흘승(紇升)과 흘(紇)은 승리하다라는 뜻을 표현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흘승과 흘의 유사한 소릿값을 가진 단어로 승리와 관련된 뜻을 가진 단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후 논의하고자 한다.58) 마지막으로 개는 애고개의 개와 같이 명사 형성 접사인 '-qai/-gei'로 분석된다.

제압해 승리했다는 뜻을 가진 모한흘승개(牟汗紇升蓋) 중 모한은 제압이란 뜻을 가진 몽골어 'moqoγon'과 연결되며 개는 명사 형성 접사인 '-qai/-gei'로 설명된다.

4. 칙련(敕連) : 神聖59)

郭錫良	上古音 : tʻĭək lĭan
	中古音 : ȶʻĭək lĭɛn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ȶhĭək lĭan
	中古音 : ȶhĭək lĭɛn
白鳥庫吉	tegri
藤田豐八	tegri
Sukhbaatar, G.	tengryin
戴光宇	tenγri yin

57) 『魏書』卷103, 列傳91, 蠕蠕傳, "步鹿眞與社崘子社拔共至叱洛侯家, 淫其少妻. 妻告步鹿眞, 叱洛侯欲舉大檀爲主, 遺大檀金馬勒爲信. 步鹿眞聞之, 歸發八千騎往圍叱洛侯, 叱洛侯焚其珍寶, 自刎而死. 步鹿眞遂掩大檀, 大檀發軍執步鹿眞及社拔, 絞殺之, 乃自立. 大檀者, 社崘季父僕渾之子, 先統別部, 鎭於西界, 能得衆心, 國人推戴之, 號牟汗紇升蓋可汗."

58) 고구려의 '흘승골성(紇升骨城)'에서도 흘승이란 단어가 보이며 모한흘승개의 흘승과 같은 한자가 일치하는데 혹 동일 어휘가 아닌가 생각된다.

59) 비추린은 신성(神聖)을 '신성(神性)한', '하늘이 준' 등의 뜻을 가진 'Божественный'로 번역하였다. Bichurin(Iakinf), N. Ya., *op. cit.*, 1950, p.217.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단어를 현대 몽골문어의 'Tengri; 하늘, 천신'와 연결시켜 분석하고 있다. 시라토리는 '칙련(敕連)'을 몽골어, 돌궐어에서 하늘, 신을 의미하는 'tegri'의 대음이라고 보았다. 그 근거로 남북조시대에 칙(敕)의 음가가 tek, tik와 동류의 음임을 돌궐어 tegin, tigin을 『송운행기(宋雲行記)』에서 '칙련(敕懃)'으로 번역했음을 통해 알 수 있다고 하였다.[60] 후지타도 시라토리의 견해와 같이 칙련을 'tegri'로 보았고, 칙(敕)이 tek, tik과 동류의 음임을 『위서』 권47의 '칙근(敕勤)', 『송사』 권59의 '직근(直懃)' 등을 예로 들며 보충하였다.[61]

수흐바타르도 역시 기본적으로는 시라토리, 후지타의 견해와 일치했다. 그러나 『몽골비사』, 『화이역어』에서 한자인 '련(連)'이 'ren, len'을 전사함에 사용되고, 여기에 어말 'n'이 있음을 근거로 하여 'tengryin'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62] 戴光宇도 수흐바타르와 같이 'tenγri yin'으로 보았는데 실제 '련(連)'의 상고음과 중고음 모두에 'n'이 있으므로 수흐바타르, 대광우[63]와 같이 'tengri + yin'으로 분석하는 게 옳다고 판단된다.

칙련(敕連)을 신성(神聖)하다는 뜻을 내포한 'tengryin; 신성(神聖)한'으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tengri; 하늘 + -yin; 속격어미'로 분석이 가능하다.

5. 처(處) 혹은 처라(處羅) : 唯[64]

郭錫良	上古音 : ȶ'ĭa (la)
	中古音 : tɕ'ĭo (lɑ)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ȶhĭa (lai)
	中古音 : tɕhĭo (la)
白鳥庫吉	dje
藤田豐八	dje
Sukhbaatar, G.	zöb
Pelliot, P.	ǰöb[ǰüb] 또는 ǰä
留金鎖	čor
戴光宇	či, čori

시라토리는 『송서』에 기록된 "을나루는 기뻐하여 절하며 아뢰기를 '처가한(處可寒)'이라 하였다. 선비어[虜言]의 '처가한'은 한어(漢語)로 '당신은 [진정한] 황제이십니다[爾官家].'라는 뜻이다."[65]에서 '처(處)'가 당신을

60)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232쪽.
61) 藤田豐八, 앞의 책, 1943, 192~193쪽.
62) Sukhbaatar, G., 앞의 책, 1992, 203~204쪽.
63) 戴光宇, 앞의 논문, 2014-2, 53쪽.
64) 비추린은 처라라고 기술하고, 유(唯)를 '옳다 옳아'란 뜻의 'точно, правда'로 번역하였다. Bichurin(Iakinf), N. Ya., *op. cit.*, 1950, p.217.
65) 『宋書』 卷96, 列傳56, 鮮卑土谷渾傳, "樓喜拜曰: 處可寒. 虜言處可寒, 宋言爾官家也."

뜻하는 '이(爾)'임을 근거로 '응낙'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 보았다. 마찬가지로 유연어에서의 처(處)를 뜻하는 유(唯)도 응낙[唯諾]한다는 뜻으로 이는 몽골어와 만주어의 'dje', 부리야트어 'zöb'의 음역이라 보았고, 처라(處羅)는 오기거나 사마광이 돌궐 카한의 칭호와 혼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66]

후지타,[67] 주위주,[68] 방장유[69] 등도 이러한 시라토리의 견해에 동조했다. 최근에는 저태송과 장애운이 시라토리와 방장유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처(處)의 뜻인 유(唯)란 글자가 '응낙하는 소리'라는 가정 속에 많은 사료를 통해 중고시기 북방에서 유(唯)가 '응낙하는 소리'로 사용되었음을 밝혔다.[70] 그러나 다른 뜻으로 사용되었을 정황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한 체 연구를 진행하였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 판단된다.

펠리오는 『송서』에서의 '이(爾)'가 2인칭 대명사로 '너'라는 뜻이라고 보았고, 이후에 처를 몽골어의 'ǰöb(ǰüb)' 또는 'ǰä'라고 하였다.[71] 수흐바타르도 펠리오와 같이 처를 몽골어의 'zöb'라고 보았는데 그 근거로 『송서』의 기록과 다양한 사전에 있는 유(唯)의 의미 및 몽골의 전설 등을 들었다.[72] 이와 달리 유금쇄는 토하진(吐賀眞)의 카한 칭호 표기로 처라(處羅)가 맞다고 보고, 이는 '유일무이(唯一無二)'를 뜻하는 몽골어 'čor'와 독음이나 뜻이 완전히 상통한다고 하였다.[73] 대광우는 '처'와 '처라'를 각기 당신을 뜻하는 몽골어 'či', 유일무이를 뜻하는 몽골어 'čori'로 재구했지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74]

이상에서 카한 칭호의 뜻인 '유(唯)'를 '응낙[唯諾]'으로 볼 지 '유일(唯一)'로 볼 지에 따라 학자들의 견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올바른 카한 칭호를 알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유(唯)'가 어떤 뜻으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이에 있어 저태송과 장애운은 여타 사료에서 '유'의 뜻을 찾았지만 이보다는 『위서』 자체에서 '유(唯)'란 글자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찾는 것이 더 정확한 뜻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위서』의 「본기(本紀)」 전체를 살펴보면 총 11번에 걸쳐 '유(唯)'란 글자가 등장하며 모두 유일하다는 뜻을 내포한 것으로 사용되었고, 응낙하는 소리나 너라는 뜻으로 사용된 바가 없다. 또한 권13~40까지 나온 100 번의 사용 예를 살핀 결과 '유일'하다는 뜻을 내포한 것이 87번으로 절대 다수이고, '응낙'이나 '대답하는 말'로 사용된 예가 3번이고, 나머지 10번이 어조사나 바라건대 등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그런데 '응낙'이나 '대답하는 말'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3번은 모두 '유유(唯唯)'라고 중첩되어 사용되었고, 홀로 '응낙'이나 '대답하는 말'로 사용된 예는 없다. 『위서』의 나머지 부분에서도 '응낙'이나 '대답하는 말'을 표현할 때는 '유'란 글자 하나를 사용했던 바가 없고, 모두 '유유(唯唯)'라고 하였다. 즉, 『위서』의 '유'자 사용 예를 살펴볼 때 카한 칭호의 뜻을 '응낙'이나 '대답하는 말'로 쓰려 했다면 '유(唯)'가 아닌 '유유(唯唯)'로 쓰였을 것이기에 '유(唯)'라고 쓴 것은 '유일'이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함이라 해야 할 것이다.[75]

---

66)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232쪽.
67) 藤田豐八, 앞의 책, 1943, 192~193쪽.
68) 周偉洲, 앞의 책, 2006, 129쪽.
69) 方壯猷, 앞의 논문, 1930, 1458쪽.
70) 儲泰松・張愛雲, 앞의 논문, 2018.
71) Paul Pelliot, *op. cit.*, 1932, p.261.
72) Sukhbaatar, G., 앞의 책, 1992, 204~205쪽.
73) 留金鎖, 앞의 논문, 1980-1, 54쪽.
74) 戴光宇, 앞의 논문, 2014-2, 53쪽.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토하진의 카한 칭호는 '처(處)'가 아닌 '처라(處羅)'로 몽골어 'čori; 유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 즉, 현존『위서』판본에 '처'라 기술된 것은 잘못이며 사마광과 호삼성이 '처라(處羅)'라고 기술한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 칭호는 돌궐의 6대 카한 이름과 10대 카한 칭호 및 서돌궐 4대 카한 칭호인 '처라(處羅)'와도 상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6. 수라부진(受羅部眞) : 惠[76)]

郭錫良	上古音 : zǐəu la bə ȶǐen
	中古音 : zǐəu lɑ bəu ȶɕǐěn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zǐu lai buə[bə] ȶǐen
	中古音 : zǐəu la bu[bəu] ȶɕǐěn
白鳥庫吉	djilakan, dsila + ??
藤田豐八	žol(žul)bujin 또는 žulubči
Sukhbaatar, G.	zolbogačin

시라토리는 '수라(受羅)'를 현 만주어에서 가련하다는 뜻인 djilakan, djilun, dailatsuka, 자애[慈]를 뜻하는 dsila 및 여진어에서 연민을 뜻하는 只剌興, 불쌍히 여김[憐]을 뜻하는 只剌埋 등과 같은 말이라고 보았다. 또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사랑'[sarang], '사랑하오'[saranghă-o]와도 연결하였다.[77)] 그러나 부진(部眞)이 어떤 뜻을 가진 단어인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후지타는 '수라(受羅)'를 좋은 운수, 천혜(天惠), 복덕(福德)의 뜻이 있는 몽골어 'žol(žul)'의 대음으로 봤다. 그리고 '부진(部眞)'은 인덕(仁德), 자혜(慈惠)의 뜻이 있는 'bujin'[78)]으로 보는 한편 žulubči일 가능성도 제기했다.[79)]

수흐바타르는 후지타와 같이 '수라(受羅)'를 몽골어 'žol(žul)'로 보면서도 조금 달리 해석하여 '수라부(受羅部)'를 'zolboga'라고 설명했다. '진(眞)'에 대해서는 후지타가 'jin[또는 yan]'으로 연결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비판하며 비슷한 시기 탁발선비의 어휘와 같이 '-čin'으로 봐야한다고 했다.[80)]

수라부진(受羅部眞)의 '라(羅)'가 처라(處羅)에서는 'ri', 두라(豆羅)에서는 'rü'임을 볼 때 초성은 'r'보아야

75) 일찍이 Pulleyblank, E. G.는 '대답하는 소리'가 카한 칭호로 쓰였다는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Pulleyblank, E. G., "The Consonantal System of Old Chinese: PartⅡ", *Asia Major* 9, 1962, p.261.

76) 비추린은 혜(惠)를 '자비로운', '호의를 가진', '친절한'이란 뜻을 가진 '**милостивый**'로 번역하였다. Bichurin(Iakinf), N. Ya., *op. cit.*, 1950, p.219.

77)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232쪽.

78) 'bujan 〉 buyan'을 잘못 전사한 것이다.

79) 藤田豐八, 앞의 책, 1943, 193~194쪽.

80) Sukhbaatar, G., 앞의 책, 1992, 205~206쪽, 214쪽. 선비 언어에 있어서 '진(眞)'의 사용례에 대해서는 이성규(2018), 「선비어 관직명 연구(鮮卑語 官職名 硏究)」,『몽골학회』53, 한국몽골학회, 2018을 참조.

한다. 따라서 수라는 'žol'과 같이 행복, 행운, 천혜라는 뜻이 있는 'žor'가 더 합당하다. 부진은 후지타의 연구처럼 'bujan 〉 buyan', '-bči'와 연결될 수 있지만 'bujan' 같은 경우 소릿값이 완벽히 부합하지 않고, '-bči'와 같은 경우 'žol'이나 'žor'와 함께 사용된 예를 찾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수라부진(受羅部眞)의 수라는 'zor; 행운, 천혜'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되며 부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7. 복고돈(伏古敦) 혹은 복명돈(伏名敦) : 恒[81]

郭錫良	上古音 : bĭwə̆k ka tuən[tuəi] bĭwə̆k mĭeŋ tuən[tuəi]
	中古音 : bĭuk[bĭəu] ku tuən[tuɒi] bĭuk[bĭəu] mĭɛŋ tuən[tuɒi]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bĭwək[bĭu] ka tuən[duən] bĭwək[bĭu] mĭeŋ tuən[duən]
	中古音 : bĭuk[bĭəu] ku tuən[tuɒi, duɑn] bĭuk[bĭəu] mĭɛŋ tuən[tuɒi, duɑn]
白鳥庫吉	böke, bökkö(mokke, mökkö)tu
藤田豊八	Bekitu(n)
留金鎖	eküride
Sukhbaatar, G.	bügüdeyin
戴光宇	boγda

시라토리는 돌궐어에서 장생(長生), 영구(永久)를 뜻하는 bängü, 몽골어족 중 동몽골어에서 장생을 뜻하는 munke 등과 연결하였다. 그러면서 우랄-알타이어계의 몽골 · 돌궐어 등에서 m, b음이 서로 통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복고돈(伏古敦)의 복고(伏古)가 'bönkhö', 'bünghü' 등의 전와(轉訛)라고 하였다. 더불어 몽골어의 yang(djang)이 유연어에서 yag으로 tengri가 tegri로 쓰인 것을 통해 유연어에서 비음 "n"이 묵음이라고 하며 현 몽골어의 monkke, mönkkö(bönkkö)가 유연에서는 'böke', 'bökkö(mokke, mökkö)'로 발음됐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돈(敦)'은 몽골어에서 '-적', '-이 있는'의 의미를 가진 접미사 'tu', 'du'로 분석하였다.[82]

후지타는 복고돈(伏古敦)과 말소리가 가장 비슷한 것으로 신성한 사람이란 뜻을 지닌 bogda가 있으나 '항(恒)'이라는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이어 항(恒)에는 '정고(貞固) 불변하면서 영속한다'는 뜻이 있음을 근거로 '복고돈(伏古敦)'을 정고(貞固), 강건(强健), 영속(永續) 등의 뜻이 있는 몽골어 'bekitu(n)'의 대음으로 봤다.[83]

81) 비추린은 복고돈으로 기술하고, 항(恒)을 '변하지 않는', '항구적인', '상설의' 등의 뜻을 가진 'постоянный'로 번역하였다. Bichurin(Iakinf), N. Ya., *op. cit.,* 1950, p.220.

82)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232~234쪽.

유금쇄는 몽골 비치크와 현대 몽골어에서 '복(伏)'과 '올(兀)' 2개의 음이 서로 바뀌어 사용되었던 현상이 있다고 설명하며 몽골 비치크의 '부인(夫人)'을 '올진(兀眞)'으로 기술한 예를 들었다. 그리고 현대 몽골어에서의 예를 든 후, 복고돈(伏古敦)은 올고돈(兀古敦)이라 읽어야 하며 이는 'eküride'이라고 보았다.[84] 하지만 유연 시기를 전후해 '복(伏)'과 '올(兀)'이 교체되어 사용되었던 정황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수흐바타르는 복고돈(伏古敦)이 몽골어의 'bügüdeyin'일지도 모른다고 하였지만 '항(恒)'이라는 뜻과 연결되지 않는다.[85] 이 외에 대광우가 복고돈을 신성하다는 뜻의 몽골어 'boγda'로 봤지만[86] 후지타가 언급했던 바와 같이 'boγda'에는 '항(恒)'이라는 의미가 없다.

『위서』「본기」에 기술되어 있는 "항(恒)"자로 지명, 관직명 등 고유 명사로 사용된 것을 제외한 11번의 용례를 분석한 결과 '영원(永遠)'이란 뜻으로 사용된 것이 1번, '항상'이란 뜻으로 사용된 것이 1번, '시종(始終)'이란 뜻으로 사용된 것이 1번이었고, 나머지 8번이 '고정(固定)'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 즉, 『위서』에서 "항(恒)"이란 글자가 '고정'이란 뜻을 내포한 것으로 다수 사용되었음으로 미루어 볼 때 후지타의 견해처럼 '정고(貞固) 불변하면서 영속한다'는 뜻으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복고돈(伏古敦)의 소릿값은 후지타가 의심한 바처럼 'bekitu(n)'과 유사하지 않는다. 이에 있어 'beki'과 같이 '정고(貞固), 강건(强健), 영속(永續)'이란 뜻을 내포한 몽골어로 'böke'가 있어 소릿값이나 형태가 복고(伏古)와 더 유사하다. 돈(敦)은 시라토리의 견해와 같이 몽골어에서 명사 어간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 '-tu/-tü~-tan/-ten'[87]으로 생각된다.

복고돈(伏古敦)은 몽골어 'böketü[ten]; 정고하며 영속한'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이는 'böke; 정고, 강건, 영속 + -tu/-tü~-tan/-ten; 명사 어간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로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카한 칭호가 복고돈으로 완벽히 해석이 되므로 『책부원구』, 『자치통감』, 호삼성의 주해 등에 쓰인 '복명돈'은 글자가 비슷해 오기를 했다 여겨진다.

8. 후기복대고자(候其伏代庫者) : 悅樂[88]

후지타는 '후기복대고자(候其伏代庫者)'를 '행복을 받다', '함께 행복을 누리다.'를 뜻하는 몽골어 'kešak birdakü'와 연결하였다 즉, '후기(候其)'를 'kešak'의 대음으로 봤으며 '복대고자(伏代庫者)'를 birdakü의 어간 birda에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표하는 어미 gēči를 붙인 명사형 'birdagēči'로 분석한 것이다.[89] 수흐바타르는 몽골어의 'kög bütügegči'일지도 모른다고 보았다.[90]

---

83) 藤田豐八, 앞의 책, 1943, 194~196쪽.
84) 留金鎖, 앞의 논문, 1980-1, 54쪽.
85) Sukhbaatar, G., 앞의 책, 1992, 206쪽.
86) 戴光宇, 앞의 논문, 2014-2, 53쪽.
87) 嘎日迪, 『中古蒙古語硏究』,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06, 200~201쪽 참조.
88) 비추린은 열락(悅樂)을 '갈망하던', '열망하던' 등의 뜻을 가진 'вожделенный'로 번역하였다. Bichurin(Iakinf), N. Ya., *op. cit.*, 1950, p.221.
89) 藤田豐八, 앞의 책, 1943, 196~197쪽.
90) Sukhbaatar, G., 앞의 책, 1992, 206~207쪽.

郭錫良	上古音 : ɣo gĭə[kĭə] bĭwə̆k də̄k k‘a ȶia
	中古音 : ɣəu gĭə[kĭə] bĭuk[bĭəu] dɒi k‘u tɕĭa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ɣɔ gĭə bĭwək[bĭu] də kha ȶɕia
	中古音 : ɣəu gĭə bĭuk[bĭəu] dɒi khu tɕĭa
藤田豐八	kešakbirdagēči
Sukhbaatar, G.	küg bütügegči

이상에서 살펴 본 후지타와 수흐바타르의 재구 형태는 '후기복대고자(候其伏代庫者)'의 당시 소릿값과는 온전히 상응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때문에 재분석이 필요한데 우선 나개(那蓋)가 카한에 올라 후기복대고자란 칭호를 받게 된 연유를 살펴보면 당시 카한이었던 두룬(豆崙)이 실정을 하던 상황에서 고차 출신의 아복지라가 자립하자 두룬과 나개가 그를 추격한다. 두룬이 아복지라에게 패배하는 반면 나개는 거듭 승리를 거두자 유연인들은 하늘이 나개를 돕는다 생각해 군주로 추대하려 한다. 하지만 나개가 반대를 하였고, 이에 무리들이 두룬 모자를 죽이고는 시신을 보여주자 나개는 카한의 자리에 오르며 후기복대고자라 하였다.[91)]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을 통해 후기복대고자의 뜻인 '열락(悅樂)'은 실정을 일삼던 두룬 대신에 나개가 카한이 되어 기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근간으로 후기복대고자의 소릿값과 그 뜻에 상응하는 어휘를 찾아보면 우선 '후기(候其)'는 '즐겁다, 유쾌하다, 고조되다, 고무되다' 등의 뜻을 지닌 몽골어 동명사 'kökikü'와 상응한다. 이어 '복대(伏代)'는 '견고한, 분명한, 확고한' 등의 뜻을 지닌 몽골어 'büketei'와 상응하고, '고자(庫者)'는 후지타와 수흐바타르의 견해처럼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표하는 어미 '-γači/-geči'와 상응한다. 즉, '즐거움을 분명히 하는 분'이란 뜻을 지닌 몽골어 'kökikü büketeigeči'는 후기복대고자의 소릿값, 그 것이 뜻하는 열락과 상통한다.

후기복대고자(候其伏代庫者)를 'kökikü büketeigeči; 즐거움을 분명케 해주신 분'으로 설명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이 단어는 'kökikü-; 즐겁다는 뜻을 지닌 동명사 + büketei; 분명한 + -γači/-geči;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표하는 어미'로 분석이 가능하다.

9. 타한(他汗) : 緖[92)]

시라토리는 '서(緖)'를 끈과 실의 뜻으로 보고 동몽골어의 utasun, utosu, Nižneudinsk어의 utuhung, utohon 등과 연결해 'utahan'의 대음(對音)이라고 보았다. 이어 중국어로 번역함에 있어 외국어의 모음 첫

91) 『魏書』卷103, 列傳91, 蠕蠕傳, "豆崙性殘暴好殺, 其臣侯醫垔 · 石洛候數以忠言諫之, 又勸與國通和, 勿侵中國. 豆怒, 誣石洛候謀反, 殺之, 夷其三族.……部內高車阿伏至羅率衆十餘萬落西走, 自立爲主. 豆崙與叔父那蓋爲二道追之, 豆崙出自浚稽山北而西, 那蓋出自金山. 豆崙頻爲阿伏至羅所敗, 那蓋累有勝捷. 國人咸以那蓋爲天所助, 欲推那蓋爲主. 那蓋不從, 衆强之, 那蓋曰: 我爲臣不可, 焉能爲主! 衆乃殺豆崙母子, 以屍示那蓋, 那蓋乃襲位. 那蓋號候其伏代庫者可汗."

92) 비추린은 서(緖)를 '상속(계승)자', '후계(후임)자', '후계', '후임' 등의 뜻을 지닌 'преемник'로 번역한 바 있다. Bichurin (Iakinf), N. Ya., *op. cit.*, 1950, p.222.

郭錫良	上古音 : t‘a ɣan	
	中古音 : t‘ɑ ɣan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thai ɣan	
	中古音 : tha ɣɑn	
白鳥庫吉	utahan 혹은 dehan, dehang	
藤田豐八	daghan, daghân	
Sukhbaatar, G.	darqan	

자를 왕왕 생략하기에 ‘u’가 빠졌을 것이라 분석했다. 한편으로는 가는 끈이나 실을 의미하는 몽골어 degesün, 부리야트어의 말고삐를 뜻하는 dêhang, dêhen, dehang 만주어에서 선을 뜻하는 tonggo 등과 연결되어 ‘dehan’, ‘dehang’의 대음일 수도 있을 거라 추측했다.[93)]

후지타는 시라토리의 견해를 부정하는 한편 『사기(史記)』, 『장자(莊子)』 등에 ‘서(緖)’가 잔여(殘餘)란 뜻으로 쓰였으나 카한의 칭호로 부적절하다 보고, ‘업을 계승한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보았다. 즉, ‘서(緖)’를 ‘따르다’는 뜻으로 임관, 취업 등의 어휘와 연결되는 몽골어 daghakhu와 daghâkhu로 분석하고, 타한을 그 명사 형태인 ‘daghan’, ‘daghân’이라고 보았다.[94)]

수호바타르는 시라토리, 후지타의 견해에 대해 뜻이나 소릿값에 있어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고, 타한을 ‘darqan’의 대음이라고 보았다.[95)] 그러나 당시 ‘darqan’으로 비정되는 달관(達官)[96)]이 관직명으로 나타나므로 카한 칭호로 성립될 수 없다. 혹여 풀리블랭크(Pulleyblank, E. G.)가 흉노의 ‘선우(單于)’를 ‘darqan’으로 해석한 바가 있는데[97)] 이 견해를 좇아도 ‘darqan’은 카한의 칭호가 아닌 카한[可汗]을 대체하는 용어이다. 또한 ‘darqan’에 ‘신성불가침의’ 뜻이 있지만 ‘서(緖)’라는 의미와도 잘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한(他汗)을 ‘darqan’으로 분석한 수호바타르의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다.

‘서(緖)’에는 후지타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전서(前緖), 승서(承緖) 등 업을 계승한다는 뜻이 있다. 또한 나개가 후기복대고자로 등극하고 태안 원년이라고 했다는 문장 바로 뒤에 나개가 죽자 아들 복도(伏圖)가 즉위하여 타한(他汗)이라 불렀다[98)]고 기록된 것을 통해서도 ‘서(緖)’가 계승을 뜻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죽은 나개를 이어 아들 복도(伏圖)가 카한이 되어 받은 칭호가 타한(他汗)으로 이를 잇는다는 뜻을 가진

93)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234쪽. 그리고 주위주는 이에 동조한 듯 자신의 저서에서 시라토리의 견해만을 소개하였다. 周偉洲, 앞의 책, 2006, 130쪽.
94) 藤田豐八, 앞의 책, 1943, 197~198쪽.
95) Sukhbaatar, G., 앞의 책, 1992, 207쪽, 215쪽.
96) 펠리오는 ‘darqan’이란 단어가 유연에서 돌궐로 유입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Pelliot, P., “Neuf notes sur des questions d’Asie centrale”, *T’oung Pao* 24, 1929, p.250.) 그리고 후에 다시 유연의 ‘달관(達官)’이 ‘darqan’이라고 언급하였다(Pelliot, P., “Tängrim 〉 tärim”, *T’oung Pao* 37-5, 1944, pp.176~177.).
97) Pulleyblank, E. G., *op. cit.,* 1962, pp.256~257.
98) 『魏書』卷103, 列傳91, 蠕蠕傳, “那蓋號候其伏代庫者可汗, 魏言悅樂也. 自稱太安元年. 那蓋死, 子伏圖立, 號他汗可汗, 魏言緖也.”

몽골어 'daghan', 'daghân'으로 분석한 후지타의 견해가 올바르다 판단된다. 즉, 타한(他汗)을 'daγa-; 따르다. 잇는다는 뜻을 가진 daγaqu의 어간 + -n; 명사 파생 어미'로 설명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10. 두라복발두벌(豆羅伏跋[拔]豆伐) : 彰制[99]

郭錫良	上古音 : do la bǐwə̌k buǎt[beǎt] do bǐwāt
	中古音 : dəu lɑ bǐuk[bǐəu] buat[bæt] dəu bǐwɐt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dɔ lai bǐwək[bǐu] buat[beat] dɔ bǐwat
	中古音 : dəu la bǐuk[bǐəu] buɑt[bæt] dəu bǐwɐt
白鳥庫吉	türü + ??
藤田豐八	türübēr badaraburi
Sukhbaatar, G.	törü böke batutai
戴光宇	doro be badarabure

시라토리는 두라복발두벌(豆羅伏跋豆伐)에서 '두라(豆羅)'를 몽골어에서 법제, 제도를 뜻하는 türü로 분석하였다.[100] 이에 있어 시라토리는 두라가 탁발(拓跋)어에서의 '두로(豆盧)'와 같다고 보며 'türü'의 음역이라고 하였으며 한국어의 '틀'[t'eul]과도 연결된다고 보았다.[101] 그러나 복발두벌이 무엇을 뜻하는 지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았다.

후지타도 시라토리와 같이 '두라(豆羅)'는 몽골어의 'türü'로 보았다. 이어 '복(伏)'을 도구격 'bēr'로 '발두(跋豆)'는 광대하다는 뜻을 지닌 몽골어 'badara'로 보았고, '벌(伐)'은 구두벌(丘豆伐)의 벌과 마찬가지로 'buri'로 보았다. 즉, 두라복발두벌(豆羅伏跋豆伐)을 '법제로써 비추는 것'을 뜻하는 몽골어 'türübēr badaraburi'로 분석한 것이다.[102]

수흐바타르는 벌(伐)과 대(代)가 많이 교란되어 사용되었음을 지적하고, 비추린(Bichurin, N. Ya.)이 기술한 바과 같이 카한 칭호의 올바른 표기를 두라복발두대(豆羅伏跋豆代)로 보고 몽골어의 'türü büke batutai'라고 보았다. 이 가운데 'büke'는 'beki'일 수도 있지만 'büke'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하였다.[103] 이 외에 戴光宇가 두라복발두벌을 만주어에서 '제도를 더욱더 발전시킨다'는 뜻을 지닌 'doro be badarabure'라고 재구하였다.[104] 그러나 이는 후지타가 재구한 'türübēr badaraburi'를 만주어 형태로 바꾼

99) 비추린은 두라복발두벌을 두라복발두대라 쓰고, 창제(彰制)를 '입법자', '법제자'의 뜻을 지닌 'законодатель'로 번역하였다. Bichurin(Iakinf), N. Ya., *op. cit.,* 1950, p.223.
100)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234쪽.
101) 白鳥庫吉, 위의 책, 1970, 169~170쪽.
102) 藤田豐八, 앞의 책, 1943, 198~199쪽.
103) Sukhbaatar, G., 앞의 책, 1992, 207쪽.
104) 戴光宇, 앞의 논문, 2014-2, 53쪽.

것일 뿐이다.

두라복발두벌이 가리키는 창제(彰制)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 위해 당시의 정황을 살펴보면 카한인 복도(伏圖)가 고차를 정벌하다 미아돌(彌俄突)에게 살해되자 아들인 추노(醜奴)가 카한에 등극하며 받은 칭호이다. 이어진 기록에 따르면 추노는 장건하고 용병술에 뛰어났으며 후에 아버지를 죽인 미아돌을 생포해 죽이고, 반란자를 모두 병합해 나라를 강성해지도록 했다고 한다.[105] 이를 통해 볼 때 추노가 '제도를 밝히다[彰制]'라는 뜻을 지닌 두라복발두벌이란 칭호를 받은 것은 빼어난 능력을 발휘해 불안한 정국을 수습하길 바라거나 수습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두라복발두벌(豆羅伏跋豆伐)을 다시 분석해보면 우선 '두라(豆羅)'는 기존 학자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현대 몽골문어의 'törü'이며 후이스 톨고이 비석에서는 'dörö'의 형태로 나타난다.[106] 이어 '복발(伏跋)'은 '빛나다, 융성하다, 번영하다, 확대하다, 발전하다, 번지다' 등의 뜻을 가진 몽골어 'badaraqu'의 어간인 'badara'로 생각된다. 그리고 두(豆)는 '무엇이 있다/가진다'의 뜻으로 사용되는 접미사 '-du(dü)/-tu(tü)', 벌(伐)은 구두벌(丘豆伐)에서의 벌과 마찬가지로 명사 파생 접사로 동사 어간에 붙는 '-buri/ -büri~-bur/-bür'로 생각된다.

'제도를 밝히다[彰制]'라는 뜻을 가진 두라복발두벌을 'törü badaratuburi; 법제를 번영케 해주신 분, 법제를 빛나게 해주신 분'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으며 이는 'törü; 법제 + badara; 빛나다, 융성하다, 번영하다, 확대하다, 발전하다, 번지다 등의 뜻을 가진 몽골어 badaraqu의 어간 + tu; 무엇이 있다/가진다는 뜻을 가진 접미사 + buri; 명사 파생 접사'로 분석이 가능하다.

11. 미우가사구(彌偶可社句) : 安靜[107]

郭錫良	上古音 : mĭei ŋo k'a ʑia kĭwo[ko]
	中古音 : mĭe ŋəu k'ɑ ʑĭa kĭu[kəu]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mĭei ŋɔ khai ʑia kĭwɔ[kɔ]
	中古音 : mĭe ŋəu khɑ ʑĭa kĭu[kəu]
藤田豐八	midal ügei jurik(žurik)
Sukhbaatar, G.	moqoγojiqo

후지타는 안정(安靜)을 부동심(不動心)으로 해석하고, 미우가사구(彌偶可社句)를 '어떠한 위험에도 동요하지 않는 강고한 정신(또는 의지)'을 뜻하는 몽골어 'midal ügei jurik(žurik)'으로 분석하였다. 즉, '미(彌)'를

105) 『魏書』 卷103, 列傳91, 蠕蠕傳, "伏圖西征高車, 爲高車王彌俄突所殺, 子醜奴立, 號豆羅伏跋豆伐可汗……醜奴壯健, 善用兵.……西征高車大破之, 禽其王彌俄突, 殺之, 盡幷叛者, 國遂强盛."

106) Vovin, A., *op. cit.*, 2018, pp.307~308.

107) 비추린은 안정(安靜)을 '고요한', '편안한' 등의 뜻을 지닌 'спокойный'로 번역하였다. Bichurin(Iakinf), N. Ya., *op. cit.*, 1950, p.230.

'midal'의 줄임으로 보고 '우가(偶可)'는 'ügei'로 '사구(社句)'는 'jurik(žurik)'의 줄임으로 보았다.[108] 하지만 그가 재구한 형태는 미우가사구(彌偶可社句)의 소릿값과 너무 다르기에 인정받기 어렵다.

수흐바타르는 미우가사구(彌偶可社句)의 뜻이나 당시의 소릿값으로 추측했을 때 몽골 비치크에 있어서의 'moqoγoqo'와 연결된다고 보았고, 이를 다시 옛 형태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moqoγojiqo'가 아닐까 추측하였다.[109] 이 견해는 소릿값에서의 유사성이 보이나 옛 형태 중 'moqoγojiqo'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확증될 수 없다.

카한 칭호로 왜 '안정(安靜)'이란 뜻을 지닌 '미우가사구'를 사용했는지 살펴보면 당시 카한이었던 추노가 죽고, 동생인 아나괴(阿那瓌)가 카한에 오른 지 10여일 만에 시발(示發)의 공격을 받아 북위로 도망쳤다. 그리고 그 모친과 동생이 죽임을 당하는 등 유연의 정세가 불안하였다. 아나괴가 북위로 도망쳐 갔을 때 사촌형인 사력발바라문(俟力發婆羅門)이 수만의 군대를 이끌고 시발을 물리치고는 카한으로 추대되어 미우가사구라 하였다.[110]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안정(安靜)'이라 한 데에는 당시 불안정한 유연의 정세를 다시 안정적으로 되돌렸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와 연관된 소릿값을 가진 어휘를 찾아볼 수 없기에 좀 더 관련 자료를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2. 칙련두병두벌(敕連頭兵豆伐) 혹은 칙련두병벌(敕連頭兵伐) : 把攬[111]

郭錫良	上古音 : tʻĭək lĭan do piaŋ 〈do〉 bĭwāt
	中古音 : ȶʻĭək lĭɛn dəu pĭɐŋ 〈dəu〉 bĭwɐt
李珍華 · 周長揖	上古音 : ȶhĭəklĭan dɔ piaŋ 〈dɔ〉 bĭwat
	中古音 : ȶhĭə klĭɛn dəu pĭɐŋ 〈dəu〉 bĭwɐt
白鳥庫吉	tegri + ??
藤田豐八	tegridur küteleburi
Sukhbaatar, G.	tengritü mendütei

시라토리는 칙련두병두벌(敕連頭兵豆伐)의 첫 두 글자인 '칙련(敕連)'을 상술한 바와 같이 몽골어 'tegri'의 대음이라 하였다. 그리고 『위서』에서 칭호 전부를 파람(把攬)의 뜻이라고 한 것은 간략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언급하였을 뿐 두병두벌(頭兵豆伐) 또는 두병벌(頭兵伐)이 어떤 뜻인지 분석하지 않았다.[112]

108) 藤田豐八, 앞의 책, 1943, 199~200쪽.
109) Sukhbaatar, G., 앞의 책, 1992, 207~208쪽.
110) 『魏書』卷103, 列傳91, 蠕蠕傳, "立醜奴弟阿那瓌. 立經十日, 其族兄俟力發示發率衆數萬以伐阿那瓌, 阿那瓌戰敗, 將弟乙居伐輕騎南走歸國. 阿那瓌母候呂陵氏及其二弟尋爲示發所殺,……阿那瓌來奔之後, 其從父兄俟力發婆羅門率數萬人入討示發, 破之. 示發走奔地豆于, 爲其所殺. 推婆羅門爲主, 號彌偶可社句可汗."
111) 비추린은 칙련두병벌으로 기술하고, 파람(把攬)을 '세운 사람', '머무는 사람' 등의 뜻을 지닌 'остановляющий'로 번역하였다. Bichurin(Iakinf), N. Ya., *op. cit.,* 1950, p.234.
112) 白鳥庫吉, 앞의 책, 1970, 235쪽.

후지타도 '칙련(敕連)'을 상술한 바와 같이 몽골어 'tegri'의 대음이라 보았고, '두(頭)'를 여격인 'dur', 'du'의 대음이라 설명했다. 이어 '병두벌(兵豆伐)'을 '구두벌(丘豆伐)'의 오기라 보고, 'küteleburi'로 해석했다. 즉, 칙련두병두벌(敕連頭兵豆伐)을 '하늘의 뜻에 따라 통제할 것'이라는 뜻의 몽골어 'tegridur küteleburi'로 설명한 것이다.[113] '병(兵)'을 '구(丘)'의 오기로 본 후지타의 견해는 현재까지 알려진 일체의 사료에서 '병(兵)'으로 기술된 게 없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려우며 응당 '병(兵)'으로 봐야 할 것이다.

수흐바타르는 칙련(敕連)을 상술한 바와 같이 'tengri'로 두(頭)를 'dü, tü'로 분석했다. 이어 병벌(兵豆)은 'm'과 'b'음이 혼용됨을 생각할 때 'mende'로 볼 수 있다고 하였고, 벌(伐)을 대(代)의 오기로 본다면 'tei'가 맞다 하였다. 그리고 이를 연결한 'tengritü mendütei'는 몽골 비치크에 있어서의 단어가 맞는다고 하였다.[114]

시라토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꽉 잡다, 움켜쥐다[把攬]'란 뜻은 칭호를 간략히 해석한 것으로 그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므로 칙련두병두벌 혹은 칙련두병벌을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나 상술한 바와 같이 유연의 카한 칭호는 그 행위나 재능에 따라 부여되었으므로 당시 아나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카한 칭호를 얻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단초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시발의 공격을 받아 카한이 된지 10여일 만에 북위로 도망쳤던 아나괴는 후에 유연으로 돌아가고자 했지만 카한이 된 바라문이 이를 바라지 않아 유연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러다 바라문이 고차에 의해 축출당하면서 수만의 연연 사람들이 앞 다투어 아나괴를 맞이한다.[115] 이후 유연은 굶주림에 북위의 장성을 침입해 약탈을 했고, 이를 훈계하러 왔던 원부(元孚)를 잡고는 다시금 약탈을 해서 북쪽으로 도망가면서 양쪽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그러다 파륙한발릉(破六韓拔陵)의 난에 아나괴가 북위를 도와 난을 진압하며 북위와 화해를 하고 이를 통해 군대가 점차 강성해 지며 칙련두병두벌이라 불렀다.[116] 즉, '꽉 잡다, 움켜쥐다[把攬]'라는 말은 카한으로의 재차 등극, 북위와의 화해 및 이를 통한 세력 확대와 관련된 표현일 것이다.

이상의 역사적 정황과 기존 견해 등을 토대로 칙련두병두벌(敕連頭兵豆伐)을 다시 분석해보면 우선 첫 글자인 칙련(敕連)은 기존 학자들이 언급한 바와 같이 칙련 카한의 칙련과 상통하며 'tengryin'의 대음으로 봐야 할 것이다. 두병(頭兵)은 '언덕, 구릉, 야산, 융기' 등과 같은 뜻을 지닌 몽골어 'dobu'일 가능성이 높으며 두와 벌을 상술한 바와 같이 각기 접미사 '-du(dü)/-tu(tü)', 명사 파생 접사인 '-buri/-büri~-bur/-bür'로 해석된다. 즉, 기존 견해와 달리 칙련두병두벌은 'tengryin dobutuburi; 신성하게 솟은 분'으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다.

113) 藤田豐八, 앞의 책, 1943, 200~201쪽.

114) Sukhbaatar, G., 앞의 책, 1992, 208쪽.

115) 『魏書』卷103, 列傳91, 蠕蠕傳, "二月, 肅宗詔舊經蠕蠕使者牒云具仁, 往喻婆羅門迎阿那瓌復藩之意. 婆羅門殊自驕慢, 無遜避之心,……會婆羅門爲高車所逐, 率十部落詣涼州歸降, 於是蠕蠕數萬相率迎阿那瓌."

116) 『魏書』卷103, 列傳91, 蠕蠕傳, "四年, 阿那瓌衆大飢, 入塞寇抄, 肅宗詔尙書左丞元孚兼行臺尙書持節喻之. 孚見阿那瓌, 爲其所執, 以孚自隨, 驅掠良口二千, 公私驛馬牛羊數十萬北遁, 謝孚放還. 詔驃騎大將軍・尙書令李崇等率騎十萬討之, 出塞三千餘里, 至瀚海, 不及而還.……是歲, 沃野鎭人破六韓拔陵反, 諸鎭相應. 孝昌元年春, 阿那瓌率衆討之, 詔遣牒云具仁齎雜物勞賜阿那瓌, 阿那瓌拜受詔命, 勒衆十萬, 從武川鎭西向沃野, 頻戰克捷. 四月, 肅宗又遣兼通直散騎常侍・中書舍人馮儁使阿那瓌, 宣勞班賜有差. 阿那瓌部落旣和, 士馬稍盛, 乃號敕連頭兵豆伐可汗."

칙련두병두벌(敕連頭兵豆伐)을 'tengryin dobutuburi; 신성하게 솟은 분'으로 해석함에 무리가 없으며 이는 'tengryin; 하늘 + dobu; 융기 + tu; 무엇이 있다/가진다는 뜻을 가진 접미사 + buri; 명사 파생 접사'로 분석이 가능하다.

Ⅳ. 유연 카한 칭호의 어휘 분석

최초 유연의 역사를 기록한 『위서(魏書)』에 따르면 유연은 동호(東胡)의 후예로 그 시조인 목골려(木骨閭)는 북위(北魏)의 시조인 신원제(神元帝) 탁발역미(拓跋力微) 말년에 약탈을 하던 기졸이 잡은 노예였다고 한다. 이후 장성하여 노예에서 방면돼 기졸이 되었는데 목제(穆帝) 시기에 기일에 늦은 처벌로 참수형에 처해질 위기에 처하자 도망을 쳤고, 도망자들을 거두어들여 100여 명이 되자 고차(高車)의 흘돌린부(紇突鄰部)에 의존했다고 한다.[117] 그리고 아들 거록회(車鹿會) 때가 되어 부민(部民)을 소유하며 스스로 유연(柔然)이라 부르고 북위에 신속(臣屬)했다. 다시 그 후손인 온흘제(縕紇提)가 흉노 철불부(鐵佛部)의 부족장이었던 유위진(劉衛辰)에게 의부하며 북위를 배반하자 북위가 유연을 공격하였고, 다시 신속된다.[118]

이처럼 유연은 그 시작부터 몽골 계통인 탁발선비와 튀르크 계통인 고차 등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이후로도 계속하여 양쪽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는데 이는 지리적으로 탁발선비와 고차의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연은 양쪽 모두에게 일정 정도 이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인데 특히 유연의 기본 신민으로 대막 남북의 대다수 인구들은 모두 돌궐어족의 유목민이었다.[119] 이러한 지정학적 환경은 자연히 그들의 언어생활에 있어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실제 유연의 관직명을 살펴보면 몽골어와 돌궐어 양쪽 모두에 존재하는 어휘로 구성된 것 많다.[120] 카한 칭호에서도 역시 몽골어와 돌궐어 양쪽 모두에 존재하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음을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 유연 카한 칭호 중의 몽골어·돌궐어 공통 단어

카한 칭호 중의 단어	몽골어	돌궐어[121]
칙련(敕連)	tengri	teŋri:
처라(處羅)	čori	čori(?)
복고(伏古)	böke	bekü
두라(豆羅)	törü	törü(törö)
두병(頭兵)	dobu	töpü(töpö)

117) 『魏書』 卷103 「蠕蠕傳」: '蠕蠕, 東胡之苗裔也……始神元之末, 掠騎有得一奴……其主字之曰木骨閭.……木骨閭旣壯, 免奴爲騎卒. 穆帝時, 坐後期當斬, 亡匿廣漠谿谷間, 收合逋逃得百餘人, 依紇突鄰部.'
118) 『魏書』 卷103 「蠕蠕傳」: '及昭成崩, 縕紇提附衛辰而貳於我. 登國中討之……縕紇提復降, 太祖撫慰如舊.'
119) 亦隣眞, 「中國北方民族與蒙古族族源」, 『亦隣眞蒙古學文集』, 呼和浩特 : 內蒙古人民出版社, 2001, 553쪽.
120) 유연의 관직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羅新, 앞의 책, 2009, 108~165쪽을 참조.

이상과 같이 카한 칭호의 일부 어휘는 몽골어와 돌궐어 모두에 존재하는 단어였지만 그래도 대다수 어휘는 몽골어였다. 그러나 몇몇 어휘는 몽골어나 돌궐어로 해석되지 않는다. 이는 유연의 통치 귀족인 욱구려씨가 선비와 비교적 밀접한 연원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전체는 흉노, 선비, 오환 등을 비롯한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 언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어 카한 칭호에 보이는 접사를 살펴보면 첫째, 벌(伐)[122) : 몽골어의 명사 파생 접사 '-buri/büri~-bur/-bür'로 파악된다. 『몽골비사』에 있어 '不舌里'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벌(伐)의 후대 형태로 생각된다. 즉, 140, 270, 274, 275절 등의 '不舌里; Büri', 50, 131절의 '不舌里 孛闊; Büri böke', 140절의 '不舌里 孛可; büri böke', 40절의 '不舌里 不勒赤舌魯; Büri bulchiru'가 그것이다. 또한 '-마다[每]'를 뜻하는 후치사 '不舌里; büri'도 보인다.

둘째, 개(蓋) : 명사 형성 접사 '-qai/-gei'로 후이스 톨고이 비석에서 유연의 카한인 아나괴(阿那瓌)가 'Ańaqay'로 표기되어 있음을 통해[123) 이 접사가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몽골비사』 중에서는 '也速該 把阿禿児; Yesügei Ba'atur', '禿該; Tügei', '塔該; Taqai', '速客該; Sükegei', '阿舌兒中孩; Arqai', '察舌剌孩 領中忽; Caraqai Lingqu', '荅中孩; Daqai' 등의 인명에서 볼 수 있듯이 '孩'이나 '該'으로 되어 있다. 더불어 선비족 인명 중의 외(瘣), 귀(歸), 신라의 왕명에 나타나는 해(解)도 이와 관련이 있다 생각된다.[124)

셋째, 돈(敦) : 명사 어간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 '-tu/-tü~-tan/-ten'의 형태로 여겨진다.[125) 가한(可汗)의 비를 가리키는 가하돈(可賀敦) 형태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이른 시기부터 사용되었다. 『몽골비사』에서 '中合勒敦; qaldun[山名]', '土敦; tudun[人名]'과 같이 중세 몽골어의 '-dun/-dün'을 한자로 전사하는데 있어 '돈(敦)'의 형태가 사용되었다. 이와 달리 '阿赤阿壇; ači'atan', '阿勒荅勒壇; adaltan', '額勒赤田; elčiten', '阿篾勒+田; emel+ten', '格舌列; gereten', 과 같이 '-tan/-ten'에 있어 '단(壇)'이나 '전(田)'의 형태로 나타난다. 고대에서 '-tu/-tü~-tan/-ten'를 표현하는 '돈(敦)'이 중세에서 '단(壇)'과 '전(田)'의 형태로 바뀌지 않았나 싶다.

넷째, 고자(庫者) :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표하는 어미 '-γači/-geči'으로 생각된다. 『몽골비사』의 '巴剌中合赤; Balaγači', 『몽골원류』에서의 'Daγači ǰayisang noyan', 'Ügeči qasq-a', 'Bekei sečen ǰayaγ ači' 등, 『황금사』에서의 'quraγači', 'utaγač'와 같은 인명에서 그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진(眞) 혹은 부진(部眞) : 접사 'jin' 혹은 '-bči'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이를

---

121) 돌궐어는 Gerard Clauson,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 Century Turkish*, Oxford: Clarendon Press, 1972.에 표기된 것을 따랐다.

122) 卓鴻澤는 벌을 탁발(拓跋)의 발(跋), 발(發), 발(撥)과 같으며 돌궐어에서 들어온 차용어로 보았다. 卓鴻澤, 『歷史語文學論叢初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64~65쪽; 羅新은 이를 "bäg/beg"의 대음으로 보았다. 羅新, 앞의 책, 2009, 152쪽. 羅新의 견해는 "bäg/beg"이 관직명으로 쓰였다는 점에서 카한 칭호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23) Vovin, A., *op. cit.*, 2018, pp.304~305.

124) 이성규, 앞의 논문, 2018, 25~26쪽.

125) 이 접사는 흉노어에서도 나타난다. 烏其拉圖(Učaraltu), 『Hungnu Kelen-ü Sudulul(匈奴語研究)』, 呼和浩特 : 內蒙古大學出版社, 2013, 23~24쪽.

확정할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카한 칭호 중의 접사들은 대체적으로 몽골어와 동일한 형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카한 칭호로 미루어 볼 때 유연의 언어는 돌궐어보다는 몽골어와 더 가까운 언어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미우가사구같은 일부 카한 칭호는 몽골어나 돌궐어로 해석이 되지 않는데 이는 여타 언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초기 카한 칭호가 대다수 몽골어로 분석됨을 통해 볼 때 유연의 언어가 원래 몽골어에 가까웠다 생각해 볼 수 있다. 이후 돌궐어에서도 사용되는 어휘들이 나오는 것은 유연에 돌궐어족 계통 사람들이 많이 흡수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미우가사구 같은 경우 서역을 경영하며 그 쪽에서 들어온 언어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지만 그 쪽 어휘에서도 비슷한 것을 찾을 수 없었기에 속단할 수는 없다.

Ⅴ. 맺음말

본고에서는 그동안 언어학적으로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던 유연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 그 뜻하는 바까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유연 카한 칭호를 분석해 보았다. 『위서(魏書)』 연연전(蠕蠕傳)과 『북사(北史)』를 비롯한 사료 및 묘지명(墓誌銘) 등에 기재되어 있는 유연 카한의 칭호를 중심으로 기존 학자들의 연구를 검토하고, 나름의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3〉 유연 카한 칭호 재구형과 그 의미

연번	카한 칭호	한문설명	재구형	의미
1	丘豆伐	駕馭開張	küteleburi	영도자, 지도자, 이끄는 분
2	藹苦蓋	資質美好	aγuuqai	훌륭한 분 〉 성군(聖君)
3	牟汗紇升蓋	制勝	moqoγon ?qai	제압해 ?분
4	敕連	神聖	tengryin	신성(神聖)한
5	處羅	唯	čori	유일(唯一)
6	受羅部眞	惠	zor ?	자혜 ?
7	伏古敦	恒	böketü[ten]	정고(貞固)하며 영속(永續)한
8	候其伏代庫者	悅樂	kökikü büketeigeči	즐거움을 분명케 해주신 분
9	他汗	緒	daγan	계승(繼承)한
10	豆羅伏跋豆伐	彰制	törü badaratuburi	법제를 번영케 해주신 분
11	彌偶可社句	安靜	-	-
12	敕連頭兵豆伐	把攬	tengryin dobutuburi	신성하게 솟은 분

이상으로 사료와 묘지명 등에 그 뜻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12개의 유연 카한 칭호를 분석해 보았다. 카한 칭호의 일부 어휘들은 돌궐어와 몽골어 모두에서 사용된 공통 어휘였지만 대다수는 몽골어로 분석이 가능했다. 또한 접사의 경우 대체로 몽골어 형태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카한 칭호의 어휘를 분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원래 형태의 유연 언어는 몽골어와 유사한 언어였을 것이다. 그러다 후에 많은 돌궐어족 인구를 흡수하며 돌궐어에서도 사용되는 어휘로 카한 칭호를 삼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미우가사구 같은 경우 후에 서역을 경영하며 그 쪽 언어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현재는 그 쪽 어휘로도 파악이 불가해 속단할 수 없다.

유연의 카한 칭호는 관직명을 비롯한 여타 언어 자료와 달리 그 뜻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기에 좀 더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미우가사구같은 칭호나 흘승, 부진 등 일부 어휘들이 어떤 단어인지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선행 연구가 있어 지금의 유연 언어 연구가 가능했듯이 향후 더 많은 언어 자료의 발굴과 정리를 통해 연구가 더 진척된다면 이들도 자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믿는다.

〈참고문헌〉

[北齊]魏收,『魏書』(點校本 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2017.
[梁]蕭子顯,『南齊書』(點校本 修訂本), 北京: 中華書局, 2017.
[梁]沈約,『宋書』, 北京: 中華書局, 1974.
[唐]姚思廉,『梁書』, 北京: 中華書局, 1973.
[唐]李延壽,『北史』, 北京: 中華書局, 1974.
[唐]杜佑,『通典』(點校本), 北京: 中華書局, 1988.
[宋]歐陽修(著)·胡三省(注),『資治通鑑』, 北京: 中華書局, 1982.
[宋]王欽若·楊億,『冊府元龜』, 北京: 中華書局, 1960.
이성규 외,『알타이어족 언어의 관직명 연구』, 용인: 단국대학교 출판부, 2013.
이성규,「선비어 관직명 연구(鮮卑語 官職名 硏究)」,『몽골학회』53, 한국몽골학회, 2018.
郭錫良,『漢字古音手冊』(增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2010.
戴光宇,「試論鮮卑語、契丹語和滿語的關係」,『満語研究』, 2014-2.
羅新,『中古北族名號硏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9.
留金鎖,「古代蒙古及蒙古汗國的建立」,『內蒙古社会科學』, 1980-1.
李樹輝,「尉犁地名和柔然源流考」,『新疆大學學報』(哲學人文社會科學版), 2007-2.
李珍華·周長揖,『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1993.
林幹,『東胡史』,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7.
方壯猷,「鮮卑語言考」,『燕京學報』8, 1930.

陝西省考古研究院, 「長安高陽原隋郁久閭可婆頭墓發掘簡報」, 『文博』, 2018-4.
嘎日迪, 『中古蒙古語研究』, 瀋陽: 遼寧民族出版社, 2006.
亦隣眞, 「中國北方民族與蒙古族族源」, 『亦隣眞蒙古學文集』, 呼和浩特: 內蒙古人民出版社, 2001.
亦隣眞・希都日古希, 「柔然拾零」, 『元史及民族與邊疆研究集刊』 23, 2011.
王國維, 「高昌寧朔將軍麴斌造寺碑跋」, 『觀堂集林 卷第二十, 史林 第十二』, 北京: 中華書局, 1959.
王萌・杜汉超, 「隋代 ≪郁久閭伏仁墓誌≫ 考釋」, 『草原文物』, 2017-1.
儲泰松・張愛雲, 「"處可寒"語源考」, 『安徽師範大學學報』(人文社會科學版) 46: 3, 2018.
趙海燕, 「隋代柔然貴族 ≪郁久閭可婆頭墓志≫ 探析」, 『四川文物』 203, 2019-1.
周建奇, 「釋"木骨閭"」, 『內蒙古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7-1.
周偉洲, 『勅勒與柔然』,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周偉洲, 『新出土中古有關胡族文物研究』, 北京: 社會科學文憲出版社, 2016.
卓鴻澤, 『歷史語文學論叢初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中國科學院歷史研究所史料編纂組編, 『柔然資料輯錄』, 北京: 中華書局, 1962.
馮承鈞, 「高車之西徙與車師鄯善國人之分散」, 『馮承鈞西北史地論集』, 北京: 中國國際廣播出版社, 2013.
內田吟風, 「後魏柔然表(上): 中古蒙古史の編年史的整理の意圖をかねて」, 『東洋史研究』 8: 5-6, 1944.
內田吟風, 「後魏柔然表(下): 中古蒙古史の編年史的整理の意圖をかねて」, 『東洋史研究』 9: 3, 1945.
內田吟風, 『北アジア史研究 鮮卑柔然突厥篇』, 京都: 同朋舍出版, 1975.
內田吟風・田村実造 他訳注, 『騎馬民族史 正史北狄伝 1』, 東京: 平凡社東洋文庫, 1971.
藤田豐八, 「蠕蠕の國號及び可汗號につきて」, 『東西交涉史の研究, 巻下, 西域篇及附篇』, 東京: 荻原星文館, 1943.
白鳥庫吉, 「東胡民族考」, 『白鳥庫吉全集, 第四卷, 塞外民族史研究 上』, 東京: 岩波書店, 1970.
諾日金(Norjin), 『monɣol kelen-ü üge bütügekü daɣaburi-yin quriyangɣui(蒙古語構詞後綴滙總)』, 呼和浩特: 內蒙古教育出版社, 2001.
Sukhbaatar, G., *Mongol Nirun Uls*, Ulaanbaatar, 1992.
烏其拉圖(Učaraltu), 『Hungnu Kelen-ü Sudulul(匈奴語研究)』, 呼和浩特: 內蒙古大學出版社, 2013.
Clauson, G., *An Etymological Dictionary of Pre-thirteenth Century Turkish*, Oxford: Clarendon Press, 1972.
Étienne de la Vaissière, "The Historical context to the Khüis Tolgoi inscription", *Academia.edu*, Retrieved 4 November, 2018.
Golden, P. B., *An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the Turkic Peoples*, Wiesbaden, 1992.
Maue, D., "Signs and Sounds", *Academia.edu*, Retrieved 4 November, 2018.
Pulleyblank, E. G., "The Consonantal System of Old Chinese: Part Ⅱ", *Asia Major* 9, 1962.
Vovin, A., "Some Thoughts on the Origins of the Old Turkic 12-Year Animal Cycle", *Central*

Asiatic Journal 48-1, 2004.

Vovin, A., "Once Again on the Ruan-ruan Language", *Ötüken'den İstanbul'a Türkçenin 1290 Yılı (720-2010) Sempozyumu From Ötüken to Istanbul*, 2010.

Vovin, A., "An Interpretation of the Khüis Tolgoi Inscription", *Academia.edu*, Retrieved 4 November, 2018.

Bichurin(Iakinf), N. Ya.,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обитавших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древние време на Т. I.*, М.; Л, 1950.

Pelliot, P., "L'origine de T'ou-kiue, nom chinois des Turcs", *T'oung Pao* 16: 5, 1915.

Pelliot, P., "Note sur les Tou-yu-houen et les Sou-p'i", *T'oung pao* 20: 5, 1920.

Pelliot, P., "Neuf notes sur des questions d'Asie centrale", *T'oung Pao* 24, 1929.

Pelliot, P., "Livres Reçus", *T'oung pao* 29: 1, 1932.

Pelliot, P., "Tängrim > tärim", *T'oung Pao* 37: 5, 1944.

Taskin, V. S.,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древних кочевых народов группы дунху*, Москва, 1984.

* 이 논문은 2019년 8월 23일에 투고되어,
2019년 9월 9일까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2019년 10월 2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9년 10월 28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Abstract

Rouran Khan Titles Research

Kang, Junyoung* · Lee, Seonggyu**

Rouran(柔然) was one of the important ancient northern tribe who rosed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parts of the Gobi Desert at the end of the 4th century. In the last 100 years, a great deal of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on Rouran, which has produced many results. However, in-depth study of Rouran language is very insufficient.

In this paper attempts to re-analyze the 12 Rouran Khan titles, which clearly indicate their meaning in historical materials. In order to understand Rouran language which has not been studied sufficiently. "In the customs of Rouran, Khan and lords are given titles according to their deeds and abilities. similar to given a posthumous epithet in China." As we can see from this recor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titles of Khan, we investigated how they became Khan and their abilities. Also in order to correctly interpret the meaning of the Khan title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we also examined the meaning of the chinese characters in "Book of Wei(魏書)". In addition, we critically reviewed previous studies.

As a result of re-analyzing the Khan title based on analysis on historical sources and previous studies, the term 'tengryin(敕連)', 'čori(處羅)', 'böke(伏古)', 'törü(豆羅)', and 'dobu(頭兵)' in the Khan title was a vocabulary that existed in both Mongolian language and Old Turkic language. However, the majority of the vocabulary was Mongolian, and the affixes were generally the same as the Mongolian forms. In addition, there were some vocabulary that could not be interpreted, such as 'heulseung(紇升)', 'bujin(部眞)', and 'miugasagu(彌偶可社句)'. Is expected to be interpreted as further progress.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be interpreted as the research progresses through the collection of more data in the future.

[Key Words] Rouran, Rouran language, Titles of Khan, Mongolian language, Old Turkic language

* Doctor's course, Inner Mongolia University

** Professor, Dankook University